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경남 서남초등학교

3학년 이하영

쌔~~억~쌩~쌩쌩~~쌔~~억~쌩~쌩~

할아버지가 숨을 쉴 때마다 나는 소리.

내 숨소리는 한숨 쉴 때 빼고는 너무나 조용한데,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열 번 중 아홉 번은 저렇다.

병원을 다녀오시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맛있는 딸기와 수박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뇌에 피가 막히는 바람에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셨지만 마음으로 표현해 주신다.

“하~여이 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환하게 웃는 건 나를 반겨주시는 인사이시다.

할아버지는 흙먼지가 날리는 비닐을 털고, 흙을 엮었다 뒤집었다 하며 흙과 한 몸이 되어 사느라 항상 온몸은 흙 투성이다. 그래서인지 나날이 가래가 낀 듯한 숨소리는 거칠어져만 간다.

책에서나 옛날에는, 시골은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해서 살기가 참 좋다고 하던데 내가 눈으로 보는 할아버지의 발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고, 흙먼지가 날려서 하우스위도 뿌옇고... 온 동네가 희미하게 보여서 꼭 내 눈이 잠이 덜 깬 듯한 불편함이 있다. 거기다 오염된 낙동강의 녹색물까지..... 내가 사는 곳이랑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밭에서 할아버지는 먹고 주무시곤 하시는데 할머니가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할아버지가 앉은 자리는 흙이 흔적을 남긴다. 그러다 보니 쉼터 안은 치우고 치워도 나날이 흔적들이 쌓여서 먼지가 되어 할아버지의 모든 물건에는 흙먼지가 함께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보내시면서도 나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어 흙먼지 묻은 지폐를 꺼내어 주신다. 나는 그 용돈을 모아서 처음에는 내가 맛있게 먹었던 닭강정을 사서 드렸는데, 거칠고 힘들게 숨쉬는 할아버지를 보고는 용돈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

깨는 맛있는 닭강정보다 맑은 공기, 맑은 숨소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해서 자연이 아파서 맑은 공기를 내뿜을 수 없으니, 자연이 나올 때 까지는 과학의 힘을 빌려 할아버지께 맑은 공기를 선물해 드릴 것이다.

하루하루 맑은 공기 마시며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맑아질 때까지 나는 자연이 낫도록 쓰레기도 줄이고, 편하다고 많이 썼던 일회용품도 줄이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연이 주는 공기와 제가 선물할 과학의 공기 마시며 편안한 숨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할아버지께 받고 있는 사랑 제가 꼭 갚아 드릴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꼭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